

은 1980년 연 4만4,000달러대에서 1990년 4만5,000달러대로 10년동안 약 1,000달러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일본계(약 7,000달러), 중국계(3,000달러)의 상승폭에는 크게 못 미쳤다. 특히 1990년 소득 중간값에서 필리핀계 6만2,000달러, 일본계 5만2,000달러, 중국계 4만9,000달러에 비해 훨씬 뒤졌다.

이같은 현상은 임금수준에도 그대로 반영돼 25세에서 54세 풀타임 남성 근로자의 경우 1990년 주급 기준 한인들의 임금은 730달러인데 비해 일본계 1,100달러, 중국계 760달러로

두 높은 수치를 나타낸 가운데 한인들은 그 중에서도 일본계와 더불어 가장 높은 교육열을 보였다.

1990년 기준 25~29세 성인중 한인 고졸자의 비율은 93%에 이르러 96%의 일본계에 이어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나타냈다. 이같은 수치는 1980년 90%에 비해 3%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영어 실력에서 한인들은 아시아계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1990년 5세 이상 인구 기준 영어 능력 조사에서 거주 한인의 35%가 '전혀 못한다', '잘 못한다'로 대답해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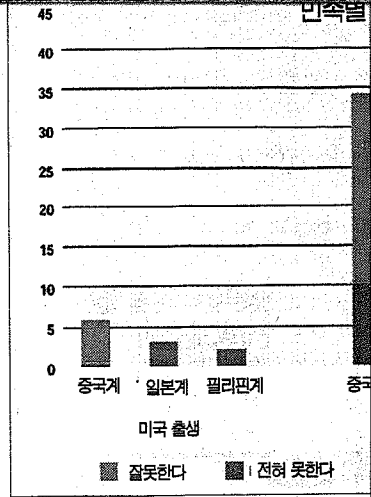
준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임산부들의 산전 관리 항목에서 한인들은 1997년 70%의 임산부가 출산 전 적절한 진단과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중국·일본계의 76%에는 뒤졌으나 아시아계 전체에서는 중간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미숙아 출산율에서 한인들은 1997년 4.2%에 머물러 아시아계 전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윤석준 기자

<ysje@joongangusa.com>



# 징용·위안부 피해 집단소송 제기

## 재미 배상추진위, 일 민간기업 상대

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인 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대규모 피해보상 소송이 LA에서 제기된다.

'재미 일본군 위안부-징용 배상 추진위원회' 정연진 위원장은 23일 "일제 시대 강제징용자와 위안부들을 위한 집단소송이 일본 민간기업 미쓰이와 미츠미시를 상대로 조만간 LA카운티 수퍼리어코트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는 권오현씨 등 미주지역 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로 구성된 '2차 대전 피해 배상청구 한인연합회'.

이번 소송에는 한태호·신혜원·김기춘·양지혜·김태희씨 등 한인 변호사 5명과 유대계 인권변호사 베리 피셔, 독일정부 상대 집단소송을 이끌었던 4개 미국 법률회사가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다.

배상 추진위원회는 이주후 LA의

자회견을 갖고 구체적인 소송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특히 지난해 독일정부를 상대로 한 유대계 피해자 집단 소송에서도 총 52억달러에 달하는 배상금 조성이라는 법정박 의의가 이뤄진 적이 있어 소송 전망이 밝다"며 "집단소송 성격상 원고 외에도 본국에 거주하는 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배상 추진위원회가 LA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지난 1999년 거주에서 제정된 '징용배상 특별법'(일명 헤이든 법)에 따라 나치와 그 동맹국에 의한 피해자들이 2010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길이 열렸기 때문.

이번 소송의 관건은 65년 한·일협정 체결로 피해보상이 마무리됐다는 일부측의 주장을 뒤엎을 수 있는 기

이를 위해 배상 추진위원회측은 20만달러의 기금을 조성, UC리버사이드 장태한 교수와 본국 징용문제 전문가 김미영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팀을 결성했다.

또 여론환기 차원에서 본국의 역사문제연구소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4개 인권단체가 가세하게 되며 일본내 인권 변호사들과의 연대도 추진중에 있다.

한편 99년에는 LA 거주 징용피해자 정재원씨가 다이헤이요 시멘트(구

오노다 시멘트)를 상대로 LA카운티 수퍼리어코트에 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에는 한국·중국·대만·필리핀 위안부 15명을 위한 일본정부 대상 집단소송이 워싱턴 DC 연방지법에서 시작됐다.

이외에도 시애틀의 운영일 변호사팀과 필라델피아 마이클 최 변호사 등이 별도의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어 미국에서만 30여건의 한인 피해자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세희 기자

